

# 대주코레스, 김제자유무역지역 167억 투자

### 전북자치도·김제시 등과 협약... 알미늄 압출·가공 일괄 생산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알미늄 업체 대주코레스(주)의 김제자유무역지역에 16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함께 27일 대주코레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영재 김제시의장, 배기환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양병환 대주코레스(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대주코레스(주)는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1만 6,528.8㎡(5,008평)부지에 167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일자리 31개를 새롭게 창출할 계획이다. 대주코레스(주)는 지난 1972년 설립(본사:완주 봉동)해 '알루미늄 한 걸'을 걸으며 알미늄 압출에서 가공까지 일괄 생산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바이오진흥원은 27일 전북 농생명식품을 대표할 유망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의 전문기업이다. 자동차 부품인 범퍼, 선루프 사이드실, 하우징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국내의 자동차용 알미늄 압출 소재 최대 공급 업체다. 또한 폴란드 미국 독일 등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며 매출액의 40% 이상 차지하는 수출유망 기업이며 지난

2023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을 수상한 바 있다. 대주코레스의 김제 공장 신축은 알미늄 압출제(원자재)인 빌렛의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 위한 생산기지로 자동차 부품의 친환경·경량화 소재 시장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올리 오는 7월 김제공장 착공함으로써 알미늄 제품 제조를 위한 빌렛 생산→압출→가공→조립의 ONE-STOP 공정 구축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공급 능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양병환 대주코레스 사장은 "김제자유무역지역 주조 공장 설립을 기반으로 자사가 보유한 R&D와 연계해 다양한 미래 소재 개발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알미늄 외길을 걷는 대주코레스와 김제시의 투자협약 체결을 축하한다"며 "대주코레스가 전북특자치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예기 기자

## 우리 농산물 음료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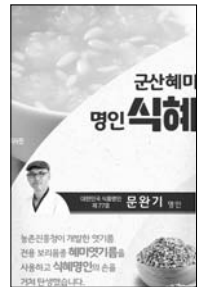
### 농진청·세븐일레븐, 군산해미명인식혜 등 편의점 음료 4종

우리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세븐일레븐과 협력해 정음 수박, 문경 오미자, 제주 감귤 등 우리 농산물로 편의점 전용 음료 제품을 기획·출시했다.

먼저 명인수박에이드는 수박 재배 경력 40여 년이 넘는 이석년 명인(전북 정음 2011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명품 수박으로 만들었다. 평균 당도 12브릭스 이상 수박이 원료로 들어가 기본종은 단맛과 시원·개운한 수박향이 매력적이다.

문경오미자에이드는 우리나라 오미자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경북 문경에서 2대째 오미자를 재배하는 정인숙 강소농이 생산한 오미자를 원료로 만들었다. 오미자 고유의 상큼·달콤한 맛과 맑고 투명한 붉은색이 특징이다.

군산해미명인식혜는 농촌진흥청이 2006년 개발한 옛기름용 곁보리 품종 '해미'를 원료로 문안기식품명인(식혜 부문)의 제조 방식으로 만들었다.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 전북 군산에서 계약재배한 곁보리 '해미'가 주인공이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세븐일레븐은 2021년 8월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과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최고농업기술명인 강소농 청년농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음료 및 먹거리 생산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샤인머스켓 에이드', '명인딸기에이드', '보종다래에이드', '고흥꽃향석류에이드' 등 모두 10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세븐일레븐과 협력해 출시하고 있는 음료 상품들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농가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익산시, "푸드테크협의회 전북지회 창립·출범 대환영"

전북의 식품산업 분야 산·학·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푸드테크 저변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27일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전북지회 발족식·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 김영재 식품진흥원이사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정삼 전주대학교 교수와 문경민 하림 상무가 전북지회 공동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월드 푸드테크 넘버원 전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협찬 출발을 알렸다. 앞으로 전북지회는 푸드테크와 관련한 연구와 기술 협력에 힘을 모아 지역 특화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정삼 신임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전북지회 공동회장은 "기술혁신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푸드테크를 접목해 식품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전북자치도가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식품산업 시장의 선두 주자로 굳건히 자리할 것을 기대한다"며 "세계 식품시장을 겨냥하는 익산시가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북자치도-도의회 바이오진흥원, 현장 간담회 추진

### 전북 농생명·식품산업 대표 유망기업... 발전 지원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재)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27일, 전북 농생명식품을 대표할 유망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현장을 찾아 다양한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물론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전북 농생명·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 지역 식품기업과 전북자치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최형열 부위원장, 전북자치도 농생명식품과 백승하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가한 기업 대표들은 원재료 상승에 대한 기업경영 애로와 관료개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바이오진흥원에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협력을 요청하였다.

전북자치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최형열 부위원장은 "전북 농식품기업의 안정적인 도약은 전북도를 위한 길이다. 기업의 현안과 건의사항이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농생명식품과 백승하 과장은 "민선 8기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식품기업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바이오진흥원은 27일 전북 농생명식품을 대표할 유망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식품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전북환경청, 기업체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 개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7일 전북지방환경청 대강당에서 2024년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학안전공동체는 화학사고 예방 및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업계 스스로 활동하는 협력체로서 화학안전 관리 기반을 갖춘 주관사(1개사)와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참여사(3개사)를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최초 7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27일 전북지방환경청 대강당에서 2024년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 공동체, 28개 사업장으로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확대를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정음, 완주 산업단지에 총 16개 공동체에 64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체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2024년 공동체 운영 방안 논의와 화학사고 사례의 원인분석 및 예방법을 공유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 법령 이행을 위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농협, 팜스테이협의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북팜스테이협의회(회장 노재석)는 지난 26일 전북농협본부 6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도내 21개 마을 대표와 사무장, 전북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결산보고·팜스테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팜스테이마을은 농가에 속식하며, 농사, 생활, 문화체험과 주변 관광지 관광 및 마을 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농촌체험관광상품으로 농협중앙회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의수의 증대를 위해 1999년부터 본격 육성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지역 소멸대책의 일환으로 관계인구 증대를 모색하기 위해 팜스테이마을 홍보를 위한 팜스테이마을 스토리텔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개의 시범마을을 선정해 마을별, 테마별, 시기별로 마을의 특색을 극대화하는 컨셉을 기획하고 Starts를 활용한



전북농협과 전북팜스테이협의회는 26일 전북농협본부 6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SNS기반 온라인홍보에 박차를 가해 다가오는 휴가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홍보효과를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팜스테이마을은 도시민들의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농어촌 콘텐츠 발전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다채로운 팜스테이마을 육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신비롭고 농촌마을을 조성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